

삼상8:10-16 /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자해를 주신다.(14)

사울의 사기로 인해서 그가 강등됩니다. 군대 장에서 천부장으로의 한직입니다.

문제는 한직으로 좌천된 다윗의 행동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한직으로 물러서 이제 전쟁이 나면 맨 앞에서 충일번이로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하면서 수군 거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한직으로 쫓기면 나가는 건가 보다. 하고 자포 지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일을 자해롭게 행하나라' 했습니다. 다윗의 태도입니다.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일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이 태도와 자세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합니다. 다윗의 태도와 자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특별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과 인생으로 남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믿으라, 그럼 나의 태도와 일에 대한 자세가 바뀌게 된 16:12절 수급하는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2.원수들이 두려워 합니다.(12,15)

다윗의 행동과 사울의 두려움이 상호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잘 못되게 하려고 강등도 시킵니다.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내리고 궁에서도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내가 못되게 하면 할수록 잘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사울은 두려웁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개나 고양이 뱀들이 사람을 보면 짓고 경계를 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이 그 소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으로 시험하는 이유는 그 소스도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이 두렵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 소스도인들은 그 소스도인 데 빛을 받고 핍박이운데 더욱 강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믿음으로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 민국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나이들이 태어난 모든 나일강에 던졌으나 사람들의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승성과도 같습니다. 그 소스도인 데 원수들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내면 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행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지로 여기심을 기뻐하여"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기 보다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다. 이 고난이 나를 더욱 빛나게 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3.사랑 받습니다.(16)

이스라엘과 유대로 믿을 나눕니다. 1)지파를 초월하여 인정을 받고 사랑받았다는 의미입니다. 2)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되어서도 지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되어서도 늘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야기입니다. 11:8절에서 압론과 싸울때에도 그 병력의 수는 셀때 이스라엘과 유대로 구분합니다. 15:4절에도 아말렉과 전투에 나갈 병력을 셀때에도 이스라엘과 유대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의미는 사울이 베나민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지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지파가 유대입니다. 이들은 창세기에 자신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아담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창9:10, 유대는 사자 새끼로다 내 이들이 너는 육기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얻도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사기까지 이르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러한 정황은 그 당시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으로 지파들의 갈등이 있었다. 내부적으로 골짜기는 상황에서 유대 지파중의 이새의 기쁜 다윗이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사울을 더욱 궁지에 몰라는 행태입니다. 왕은 사울이지만 조금합니다. 사울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적으로 정식으로 영적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에 대한 사울의 대처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정식으로 영적으로 혼탁하다고 수급 타는 사람을 구하지 않나.. 자신을 천천이라고 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나.. 등등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맡겨진 임무를 감당합니다. 백성들 앞에 출 입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신뢰를 얻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직기가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